

“곰삭은 젓갈·천일염 사러 오세요”

영광 염산서 다음달 2~5일 ‘젓갈·소금·농수산물 대축제’

내달 중순 태양초 고추시장 개설

김장철을 앞두고 영광에서 품질 좋은 각종 김장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영광군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4일 동안 염산면 설도항 일대에서 ‘제 7회 영광 염산 젓갈·소금·농수산물 대축제’가 개최된다. 영광은 수산자원의 보고인 황금어장 칠산바다가 위치하고 있고 천일염도 매년 4만2천여t씩 생산되고 있다. 이때문에 염산 젓갈은 서해 칠산 앞바다에서 건지는 싱싱한 수산물에 지역 특산물인 천일염으로 맛을 낸 것이 특징. 특히 영광갯벌은 미네랄 등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고 풍부한 영양분, 조수 간만의 차, 많은 일조량, 계절풍의 영향으로 천일염 생산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같은 지리적 특성과 천일염으로 인해 염산 설도 젓갈은 전국적 명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연간 3천500여t이 생산돼 75억여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또 다음달 중순부터 영광 태양초 고추를 판매하는 고추시장도 개설돼 김장을 준비하는 주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영광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염산 설도 젓갈을 전국에 홍보하는 등 젓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젓갈보관용기 지원사업과 젓갈가공단지 조성사업 등 젓갈을 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염산면 인근에는 불갑사와 수변공원을 비롯해 낙조로 이름 높은 백수해안도로의 해안풍경, 법성포의 굴비 등 볼거리와 먹을 거리가 산재해 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영광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염산 설도 젓갈을 전국에 홍보하는 등 젓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젓갈보관용기 지원사업과 젓갈가공단지 조성사업 등 젓갈을 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염산면 인근에는 불갑사와 수변공원을 비롯해 낙조로 이름 높은 백수해안도로의 해안풍경, 법성포의 굴비 등 볼거리와 먹을 거리가 산재해 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순천시청 홈페이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천시지부 홈페이지에 연일 공무원들의 자질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순천시 연향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의자와 함께 속칭 ‘고스트’ 도박을 한 순천시청 5급 공무원들 때문이다. 순천시는 노관규 시장을 비롯해 대다수 공직자들이 시정발전을

기록보존

4기 출범 이후 과학적으로 요지에 중용됐다. 이들은 인사행정 전반과 공무원 복무를 점검하고 지도하는 역할과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부서의 책임을 맡아 왔다. 이들 공무원이 도박에 가담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하위 공무원들은 자괴감에 빠져 있다. 특히

해남 녹우당서 고산 문학축전

해남군이 27일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에서 청소년 시서화 백일장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고산 문학축전’을 연다. 전국 규모로 올해 처음 열리는 전국 청소년 백일장은 전국 16개 시군에서 작품을 응모한 학생들이 참여해 고산의 문학적 업적을 되새기게 된다. 다음 달 4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고산 문학대상 시상식에서는 대구 출신의 시인 박기섭(54) 씨가 수상자로 선정돼 1천만 원의 상금과 상패를 받는다. 시상식 이후에는 축하공연과 고산 시가 낭송대회가 열린다. 또 고산 문학축전 부대행사로 군민광장에서는 해남미술협회 주관 서예체험, 그리기 체험, 도예체험, 퍼포먼스, 가훈 써주기 등 다양한 미술 체험마당과 문화원 소속 실버봉사단 공연 등이 마련된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도박 공무원’ 원칙대로 징계해야

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런데도 순천시청의 주요 요직 과장들이 집단 500~2천원씩을 걸고 하루에 250만~350만원 등 2천400여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에 열중했다고 한다. 2천400여 만이면 서민 아파트 전세금에 해당하는 돈이다. 요즘 고유가와 고환율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그럼에도 고위 공무원들이 하루에 몇 백만원을 아무렇지 않게 도박으로 탕진했다는데 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공무원들은 민선



김은중

〈동부취재본부 기자〉

공무원들의 인사를 권고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1천300여 시산하 공직자들은 주시하고 있다. 이번 파문으로 순천시청 공직자들이 합심해 달성했던 전국 지자체 청렴도 상위 기관의 명성도 한 순간에 무너졌다. 당사자들은 깊은 반성과 사죄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평소 노관규 순천시장은 원칙을 강조해 왔다. 노 시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시청 공직자들 뿐 아니라 27만 순천시민이 주시하고 있다. ejkim@

완도 납치 부산·경남 공략 나선다

호남 향우회에 고향 수산물 사주기 등 추진

완도군이 수입할어 급증과 사료값 인상, 소비부진 등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는 납치(광어) 양식어민들을 위한 ‘완도납치 & LOVE’ 소비전략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생산어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전복을 대박상품으로 번모시킨 완도군은 지역의 대표적 양식 수산물인

납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근 시장조사단을 구성해 부산과 경남지역 현지 조사를 끝마쳤다. 시장 조사단은 전국에서 수산물 소비가 가장 많은 지역 중의 하나인 부산·경남 지역을 타깃으로 삼아 시장 상황, 수출·입 동향, 물류유통 거점 전복을 대박상품으로 번모시킨 완도군은 지역의 대표적 양식 수산물인

석했다. 특히 부산지역에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 호남 향우회를 1차 공략 목표로 정한 완도군은 고향 사랑 운동을 벌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제주산 납치가 주를 이루는 부산과 경남의 납치 시장에서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은 완도산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

다”라며 “납치 유통회사와 협력을 통해 부산·경남 시장을 우선 공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납치 가격은 kg당 8천500원으로 지난해보다 20%가량 폭락해 양식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완도군은 200여 어가에서 3천500여만 리의 납치를 양식, 1만4천여t을 생산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붉은 물감 뿌린 듯... 함평은 꽃무릇 천지
함평 해변면 용천사 일대에 꽃무릇이 만개해 붉은 물결을 이루고 있다. 수선화과의 화려해살이 풀인 꽃무릇은 9~10월에 꽃이 피며 꽃이 진후 짙은 녹색의 잎이 나온다. /나명주기자 mjna@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 담양 ‘생태농업이 잘 된 도시’ 곡성

이름다운 도시 대상 수상

담양군과 곡성군이 한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와 ‘생태농업이 잘 된 도시’에 선정됐다.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대상’ 시상식에서 담양군은 ‘가보고 싶은 도시’부문에서, 곡성군은 ‘생태농업 도시’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담양군은 그동안 지역 부존자원인 대나무를 활용해 ‘죽녹원’을 조성했으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과 가로수 길로 각각 선정

된 천연기념물 제 366호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을 연계한 관광 1번지를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곡성군은 친환경 중심의 소득증대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전국 제1의 친환경농업 메카를 목표로 2011년까지 10개 분야 50대 핵심과제에 2천340억원이 투자되는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친환경농업 비중을 전체 경지면적의 40%까지 끌어 올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철수기자 bungy@kwangju.co.kr

폐 콘크리트서 골재 생산 신기술 개발

함평 천지환경... 설치비용 기존 시스템 비해 절반

폐 콘크리트에서 골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됐다. 함평 천지환경(대표 최성규)은 지난 7월 ‘순환 잔골재 건축생산 시스템’ 신기술을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아 26일 공개 시연회를 갖는다. 이번에 개발된 신기술은 기존 공법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과 생산단가, 유지관리 비용이 저렴하고 설치 부지를 축소할 수 있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특히 이번에 신기술로 생산된 골재는 도로공사 보조기증 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폐자재의 재활용 측면

에서 획기적인 신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998년부터 재생처리업에 뛰어들어 천지환경은 2005년 주택공사 재사용연구사업단, 충남대·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성안이엔터 등과 공동으로 신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최성규 대표는 “기존 습식생산 시스템에 비해 신기술은 고속회전 충격방식과 미세입 분리회수 방식으로 고급 골재를 생산한다”며 “초기 설치비용이 습식생산 시스템에 비해 절반 수준인 6억여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함평=박영민기자 pyj4079@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과 이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과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도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과 행복, 건강이 행복을 키워줍니다.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어 줍니다. 국제약품은 모든도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nicepharm.co.kr

비타민 A, C, E 복합 보충

코멘자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아연의 보충